

# 第六十二回 國會會議錄 開會式 國會事務處

一、日時 一九六七年九月一日(金) 午前一〇時

第六十二回國會(定期會)開會式式順

- 一、開 式
- 二、國旗에 對한 敬禮
- 三、愛國歌 齊唱
- 四、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對한 默念
- 五、式 辭(議長)
- 六、閉 式

(司會 金玉珍 涉外室長)

(午前一〇時三分開式)

○涉外室長(金玉珍) 지금으로부터 第六十二回

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읍니다  
먼저 國旗에 對한 敬禮가 있겠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對한 敬禮)

다음은 愛國家齊唱이 있겠읍니다

齊唱은 錄音前奏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다음은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對한 默

念이 있겠읍니다

(一同 默念)

一同 着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長께서 式辭가 있겠읍니다

○議長(李孝祥) 尊敬하을 大法院長閣下 國務總理  
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그리고 議員 여러분!

一九六七年九月一日 開會式

오늘 우리는 現時局을 收拾하지 못한채 다시 定期國會를 맞이하였읍니다 定期國會는 法的으로 自動的으로 열리게되며 또한 豫算 國政監査를 비롯하여 이에 隨伴되는 重要法案을 審議하는 使命을 完遂해야 하므로 本人은 國會召集을 公告하는 同時에 野黨議員 全員에게 個別的으로 그 出席을 要望하는 公翰을 보냈으나 오늘 한분도 如前히 出席하지 아니한 것을 볼때 여러분과 함께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六·八總選 後의 梗塞된 時局의 打開을 爲하여 그동안 두번에 걸쳐서 本人이 與野 重鎮 豫備會談을 열자고 提議한 바 있었으나 與黨은 이에 誠意를 가지고 代表團까지 보내어 왔지만 野黨은 極히 冷淡한 態度로 不應하여 結局 失敗에 돌아가고 말았읍니다

勿論 本人의 提案內容이 너무나 不充分하고 너무나 不合理하였던 것일는지 모르지만 元來 非才淺學한 本人으로서는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 提案하였던 것입니다 本人은 全面再選이나 全面不正 같은 것은 問題도 될 수 없는 主張이라는 것을 表明한 바 있고 그 以內的 範圍에서 이 時局을 收拾하는 方案을 摸索한 結果 本人의 提案을 野黨側이 一蹴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 말도 없이 一蹴만 당하고 보니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野黨側에서 全面不正을 是認하지 않으면 國會에 出席할 수 없

다는 主張을 하고 있으나 野黨의 當選區域을 除外하고 與黨 當選區域만 全面不正이라는 것인지는 또 全面再選은 안해도 좋다는 全面不正이라는 것인지는 도무지 그 意味를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忌憚없는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도 언제나 같은 主張을 되풀이하고만 있읍니다 생각컨대 野黨은 六·八總選에 있어서 行政力이 露骨的으로 介入해서 三·一五不正選舉를 彷彿케하는 不正을 敢行하였으니 主權의 蹂躪이요 民主主義의 抹殺이므로 이대로는 國會의 成立까지도 疑心이 나는 것이라는 것 같습니다

親愛하는 議員여러분! 그리고 國民여러분! 野黨의 위와같은 생각에 一理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果然 全的으로 眞實이라 하겠읍니까? 本人은 지난번 六·一六 大統領談話로서 國民의 大多數에게 納得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國民은 거의 全部가 全面再選이란 不能하고 不當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膠着된 現政局을 어떻게 收拾해야 하느냐하는 方針에 있어서는 本人은 民主精神과 自主精神의 發揮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民主主義의 三大原理가 理解와 說得과 妥協이란 면이 妥協없이 民主政治를 할 수가 없읍니다 野黨은 與黨의 立場에서 與黨은 野黨의 立場에서 이 時局을 觀察하고 判斷하고 解決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바

다 그動機나 過程은 어떻게 되었는지 間에 六  
八邊議의 結果로 보아 與黨은 豫想外로 多數黨  
選이 되었는 反面에 野黨은 豫想外로 少數黨  
選이 되었읍니다 結果만 가지고 볼 때에 野黨  
은 選舉不正의 主張을 내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다 그 때문에 與黨은 野黨의 이러한 立場에  
對하여 謙虛하게 理解하는 精神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與黨이나 政府가 이 點에 吝嗇해서  
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誠意가 六  
一六大統領談話로써 올바른 方向으로 反映되  
었으나 그後의 處理로써 弱화된 것과 같은 느  
낌을 줌으로써 野黨의 固執이 풀리지 않고  
있읍니다

反面 野黨은 出發에 있어서 鬭爭目標을 지나  
치게 設定했읍니다 全面再選을 標榜한 것은 너  
무過度했고 또 그것을 너무 오래 持續했읍니  
다 이제 와서 後退가 困難하게 되었읍니다 그  
러나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初志一貫 固執한다  
하다라도 애초에 過하였던 것이라면 앞으로는  
漸漸 더 過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與黨은 理解와 說得을 통해서 妥  
協을 摸索해야 하고 또 野黨도 過度한 主張만  
내세우지 말고 與黨立場을 理解하고 說得시키  
고 妥協할 줄 아는 政治人的 基本姿勢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親愛하는 議員여러분!  
或者는 時局을 收拾하겠다고 壯談하고 나선 國  
會議長이 하나도 問題의 焦點을 지르지 못하  
고 主觀的 觀念的 抽象論만 가지고 談話만 發  
표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렇게 妥協하고 無力한

方法으로 能히 難局을 收拾할 수가 있으리라  
고 믿고 있는가 할지 모르나 첫째 國會議長은 어  
떠한 斷案의 保障도 할 수가 없을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할 수 있는 본이 따로 있고  
셋째 그러한 要望은 國會로서 國會의 意思가  
決定된다면 合法的으로 밖에 達成可能性이 없  
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本人은 立法府의 權限과  
使命 안에서 活動하는 것을 職責으로 알고 있  
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人은 도리어 與野할 것  
없이 모든 議員에게 적어도 國會正常化는 國會  
議員 自身들이 解決해야 된다는 基本姿勢를  
確立해 달라고 呼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自主精神의 發揮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斷案을 기다리나 或은 그 保障을 기다리나  
것은 國會議員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는 것입니다 萬一 所謂 말하는 斷案이나 保  
障이 없다고 한다면 國會는 그것을 기다리기  
爲하여 언제까지나 空轉해야 된단 말입니까?  
大韓民國에 있어서 國會는 儼然한 獨立된 憲  
法機關입니다 不正에 對한 調査나 調査後의 處  
理나 行政缺陷의 是正要求를 合法的으로 能히  
할 수 있고 또 不正選舉를 막는 立法의 唯  
一한 機關이 바로 國會가 아니냐 말입니까  
本人에게 이 難局을 收拾할 수 있는 德望도  
能力도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本人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本人이 三權  
分立의 大原則을 侵害해서까지 活動해야 된다는  
생각은 秋毫도 없읍니다 다만 本人의 微誠이라도  
끝까지 表示하여 與野 共히 스스로 反省하고

覺悟하고 讓步하고 協調하는 精神을 自主的으  
로 發揮하도록 努力하는 霧團氣를 造成하는  
것만이 本人에게 負荷된 使命이라고 確信하고  
있는 것입니다  
親愛하운 國會議員 여러분!  
與黨으로서는 이 時局을 收拾할 責任이 野黨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사실을 믿읍니다 어떠  
한 執權黨도 그러하겠지마는 政黨의 近代化를  
부르짖는 共和黨은 특히 더 그러하다는 것  
을 痛感하여야 할 것입니다 野黨은 統合한 지  
時日이 日淺하지마는 이 難局을 突破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隘路가 있더라도 어떠한 極限  
에 이르는 일 없이 國民의 期待에 副應해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운 議員 여러분!  
오늘 開會되는 六十二回 定期國會를 어떻게 運  
營할 것이냐 하는데 對해서는 무엇보다도 野  
黨의 出席을 일어야 하는 問題를 먼저 解決  
해야 하겠읍니다 不德하고 無能한 本人은 다  
시 여러분의 協力を 얻어서 未久에 第三次  
收拾案을 發表할 豫定입니다 이번에는 틀림없  
이 成功하리라 믿고 또 期於이 成功시켜야  
하겠읍니다 本人에게 刮目할만한 무슨 案이  
있어서가 아니라 誠意를 다해야 한다는 本人  
의 眞心の 發露인 것입니다 民主主義에는 忍  
耐와 誠實이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인줄 생각합  
니다  
現在와 같은 政治不在의 狀態에서 國會의 威  
信은 땅에 떨어졌고 國內外的으로 모든 國政  
이 杜塞地境에 이르러 國會正常化가 무엇 보

다 緊急한 이 때에 우리가 하루 빨리 時局을收拾하다 것인가? 밤에 나는 것은 미처 생각할 餘裕가 내게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國會正常化 如何에 따라서 國會運營의 具體的 方針을 세울 道理밖에 없으므로 그것은 다음에 暇한 機會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 本人의 率直한 告白입니다. 생각컨대 與野를 莫論하고 政黨보다 國家가 더 所重할 뿐 아니라 國家를 爲하여 政黨이 存在한다는 것과 이 時局을 하루 빨리 收拾해서 國會를 正常化시켜야 한다는 것에 아무도 異議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緊迫한 時機에 어찌 解決이 되지 않을 理가 있겠습니까?

지난 臨時國會 때와는 모든 사람의 覺悟가 많이 다르리라 믿습니다. 지금과 같은 政治人에 對한 國民의 不信을 挽回하려면 먼저 政治人相互의 不信을 除去해야 합니다. 政黨이 서로 不信하고 黨內가 서로 不信해 가지고는 國民의 信任을 回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 宗목 與野議員 여러분께서 民主精神을 充分히發揮하고자 努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眞理와 正義는 必勝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事實을 아무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理解하기 爲하여 暫時라도 相對方의 立場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暫時라도 相對方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國民들이 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健闘을 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涉外宣長(金玉珍) 이것으로써 第六十二回國會定期會 開會式은 마치겠습니다 (午前一〇時二六分閉式)